

장 미셸 빌모트의 전시공간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Presented in Exhibition Spaces of Jean-Michel Wilmotte

Author 송가현 Song, Ga-Hyun / 정회원,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석사과정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oday, the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architects enters the open market of South Korean architecture and interior from exhibition spaces such as art galleries to buildings of major companies. Establishing new local landmarks, their works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Among many, French architect Jean-Michel Wilmotte has worked consistentl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put together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the interior design in his exhibition spaces including Gana Art Gallery. Jean-Michel Wilmotte has designed based on the history, culture, society, and arts in France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is influenced by architects like Charles Rennie Mackintosh, Josef Hoffmann, and Carlo Scarpa. Such an influence is shown in the form of contrast between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as well as the fortification in his modern classical characteristic, which is one of his expression characters. In his work of improving the ancient architecture, Wilmotte is good at creating a modern space through contextual expression, and the textural contrast between material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hus I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the interior design i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hiado in Lisbon, Cognac Hennessy Museum in France, Gana Art Gallery in Korea, Musée du Président Jacques Chirac in Sarran, France,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UCCA) in Beijing, and lastly Musée d'Orsay in Paris. The results show that he maintains the spatial context by applying contemporary design to the preserved existing structure, continues the flow of exhibition through the lightings in the corridors and on the ceiling, and seeks for a balance by adding vertical or horizontal elements to the elevation. In the interior, the staircase and exhibition structure are turned into objects, and the contrasting texture of the wall vitalizes the space. Wilmotte redesigns the space of the past and the present by using indirect joint that allows an organic connection of the old and new structures, and by minimiz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elements through prefabrication. The expression character of his interior design will be potential resources for architects and interior designers to develop their own design languages.

Keywords 장 미셸 빌모트, 전시공간,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Jean Michel Wilmotte, Exhibition Space, Interior Design of Expressionl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의 건축과 실내 분야는 세계 시장 개방을 통해 미술관 등의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주택 및 대기업 사옥에 이르는 작품 등에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국내 활동이 늘어가고 있다.

2002년 프랑스 건축가 뱅상 코르뉘가 설계한 대림미술관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램 쿨하스가 설계한 삼성 리움 미술관, 2008년에는 도미니크 페로의 이화캠퍼스복합단지, 2013년과 2014년에는 안도 다다오의 한솔 뮤지엄 개관과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오픈까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면서 국내 건축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국내 활동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데 반해 프랑스 건축가이면서 실내디자이너인 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oonduck.kim@kku.ac.kr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는 국내에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그는 도시 건축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 가구·조명디자인을 아우르는 총체적 디자이너로서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박물관 내부와 샹젤리제 거리의 도시 디자인 등 다방면의 작업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가나아트센터를 비롯해 서울 옥션하우스와 인사아트센터, 인천국제공항의 실내디자인을 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대전문화예술센터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 미셸 빌모트의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을 분석,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빌모트의 실내디자인 표현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장에서 그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던 디자인 배경과 건축적 영향을 국내·외의 전문 서적 등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빌모트가 디자인을 시작한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실내공간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표현특성을 추출하고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디자인 표현특성을 토대로 그의 디자인 표현특성이 잘 나타난 전시공간 6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및 서적을 통해 분석한다. 5장에서는 빌모트의 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실내디자인 표현특성을 종합한다.

2. 장 미셸 빌모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디자인 배경

장 미셸 빌모트는 현대 프랑스의 디자인계를 선도하는 실내디자이너 겸 건축가로 1948년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에콜 카몽도 대학에서 실내건축을 전공하였다. 그는 미테랑 대통령 침실, 워싱턴의 프랑스 대사관 등을 디자인하면서 실내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펼쳤으며, 루브르 박물관의 실내디자인을 완성하면서 유명해졌다.¹⁾ 실내디자이너로서 활동한 그는 자신의 디자인 영역을 넓히고자 1993년에 건축학 학위를 받으면서 방송국이나 오페라 극장, 시청사 등의 규모가 큰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의 디자인 사무소는 빌모트 & 어소시에이츠로 재조직되어 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도시와 건축, 실내 및 가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 고건축물을 개수하는 작업으로 과거와 현대를 접목하는 자신만의 디자인을 발전시켰으며, 20세기 초 근대건축인 찰스 레니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와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의 작품

에 관심과 함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건축가들이나 건축주, 작업 파트너 등과 작업하면서 그들의 장·단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건축적 조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도시, 자연 등 외부환경과의 중간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과의 교감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공간이나 비전문가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을 설계의 출발점으로 여겼다. 그는 소품부터 건축과 도시를 이루는 환경까지 광범위하게 디자인하기에 리처드 마이어는 그를 현대에 살고 있는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른다.²⁾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디자인은 ‘아르데코의 전통’과 ‘기사, 기술자의 전통’의 두 개의 흐름을 지니고 있었다. 아르데코 정신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디자인에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는 독창적인 산물로 구상적인 형태에 기하학적 요소를 더해 직선을 강조하는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재료에 가치를 부여하여 장엄한 형태를 탈피하려 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거부하며 전통에 머무르려는 방어적인 모습으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예술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후, 프랑스에 전파된 유럽의 기능주의는 쇠퇴하였으나 삶의 질은 점점 도시화되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디자인과 소비시장은 점점 더 국제화되어갔다. 또한, 한정된 대량생산의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아방가르드의 재활성화에 의해 조형예술의 부활과 수공예의 가치가 재발견되어 실내디자인이 크게 대두되었다.³⁾

2.2. 건축적 영향

빌모트는 이탈리아의 오페라나 영화, 덴마크의 현대주의와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특히 건축적으로는 찰스 레니 매킨토시나 요제프 호프만 등 근대 건축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스코틀랜드의 찰스 레니 매킨토시는 가구에서 실내디자인, 건축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을 한 전천후 디자이너 겸 건축가로 고전적인 축을 결합한 장식이 배제된 공간을 선보였다. 그의 디자인은 미술공예 운동과 역사주의, 자연의 형태, 일본 문화 등에서 영향을 받은 기하학적 아르누보의 디자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매킨토시의



<그림 1> Charles Rennie Mackintosh, Hill house ladder back chair, 1902

기하학적 아르누보의 특성은 공간에서 수평선을 강조하면서 표면 장식이 없는 담백한 공간과 단순한 디테일을 통해 새로운 비례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나 수직·수평을

2) 장순각, SPACE, 1998, 9월호, p.36

3) 윤민희,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과 디자인 정책,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권 1997, pp.132-136

1) 송현철, pid, 1992, 10월호,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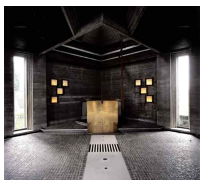
통한 기하학적 시스템으로 마감과 구조를 통일, 직선적인 요소나 곡선적인 요소의 대비 등에 의한 상승작용을 취하는 것이었다.⁴⁾

빌모트가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의 건축가인 요제프 호프만은 비엔나 국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건축 교육을 받은 후, 이탈리아 여행을 계기로 아카데미 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자유롭고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게 되었다. 호프만은 매킨토시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로 윤곽선을 통해 건축물을 세심하게 장식하면서 건축물을 육중한 덩어리가 아닌 면으로 구성된 건축으로 인식되게 디자인하였다.⁵⁾ 그가 설계한 스토클레 저택도 기하학적인 구성, 축의 설정과 함께 단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건축가인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에게서 디테일에 대한 것과 공간에 있어 빛의 사용에 대한 것을 영향 받았다. 이에 이질 재료의 구성과 통합을 통해 접합부를 강조하는 장식적 디테일과 빛의 양을 풍부하게 받아서 부드럽게 확산시키는 모서리 창, 이중 파사드 등의 공간 조형 언어가 빌모트의 작품 안에 녹아있다.⁶⁾



<그림 2> Josef Hoffmann, Stoclet House, 1911



<그림 3> Carlo Scarpa, Brion family cemetery, 1969

3. 장 미셸 빌모트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표현특성

장 미셸 빌모트의 디자인 표현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논문⁷⁾과 문헌, 현장 답사를 통하여 그가 디자인을 시작한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실내공간 작품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표현특성을 추출하였다.

3.1. 공간의 맥락성

빌모트는 건축 본래의 모습이 실내공간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의 건축 이념이 현대에도 변

4) 김성혜, 매킨토시 작품에 나타난 공간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협성대 석사논문, 2002, pp.313-318
 5) 이유진, 요제프 호프만의 건축에 나타난 '비형상적' 장식의 시각적 효과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1, p.60
 6) 권영재, 카를로 스카르파의 공간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6, pp.5-8
 7) 황미영, 장 미셸 빌모트(Jean Michel Wilmotte)의 museografia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논문집 제9집 제1호, 2003 문헌석, Jean Michel Wilmotte의 국내작품에 나타난 지역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2007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그는 과거와 현재의 교류를 영원한 주제로 여기면서 공간 속에서 맥락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벽난로나 돌 하나에서라도 창조 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흔적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가미해 나갔다.

1989년에 빌모트는 툴루즈 지방의 테크날 건축물을 개수하면서 과거의 것과 현대적인 것의 강렬한 대조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이 지닌 벽돌 벽과 아치 구조로 역사의 깊이와 맥락성을 표현하면서 차가운 유리알루미늄, 철재 등 서로 다른 질감의 재료들로 상반된 시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비뇽에 위치한 경매장은 16세기에 지어진 목조 천장 구조물과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의 맥락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⁸⁾ 이를 통해 그의 재건축 작품에서는 오래된 돌보나 아치형의 천장, 벽과 바닥을 비롯한 실내 구조물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료로 맥락성을 표현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삽입,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림 4> Technal,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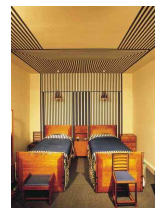


<그림 5> Auction hall, 1989

3.2. 축의 설정

프랑스 파리의 도시계획이나 정원은 기하학적인 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출신인 그에게서 공간의 축을 사용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한, 근대 초의 매킨토시나 호프만 등에게서 영향을 받은 모던 클래식이라는 디자인 특성은 <그림 6>와 같은 축의 설정과도 연관성이 있다.

빌모트가 1990년에 디자인한 도쿄의 분카무라에서는 실내공간의 천장 등에 조명을 이용한 축을 설정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그가 디자인한 마쿠하리의 테크노 가든 아트리움에서는 디자인 콘셉트를 프렌치 가든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축의 설정과 완벽한 대칭성, 정연한 기하학적 특성이라는 프랑스 정원의 속성을 도입하는 등, 축의 설정을 확연하게 표현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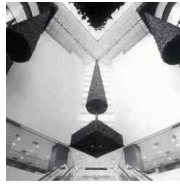


<그림 6> Charles Rennie Mackintosh, Dergate, Bedroom 1917

8) Jean-Michel Wilmotte, SD, 1991, 2월호, pp.37-51
 9) 상계서, pp.64-66



<그림 7> Bunkamura, 1990



<그림 8> Techno Garden Artrium, 1990

3.3. 수직 · 수평의 대비

빌모트의 작품은 한 마디로 모던 클래식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가 디자인한 서울 옥션센터의 빌 레스토랑의 로고는 M 자 가운데에 수직선을 그은 형태를 하고 있다. 즉, 그 로고는 빌모트의 수직과 수평을 통한 대비와 축을 강조하는 디자인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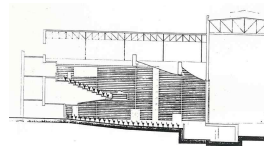
<그림 9> Seoul Auction House, 1999

그의 작품에는 늘 대칭과 균형 그리고 기하학적인 우아함이 따른다. 수직·수평의 대비는 공간에 대비에 의한 긴장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하학적인 안정감도 부여한다. 직선의 선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한다.¹⁰⁾

1983년에 개수한 엘리제궁 내에 있는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의 침실은 백연 처리된 벽면에 하얀 대리석의 재료 분리대를 수직·수평으로 배치하여 간결하면서도 균형 있는 공간을 완성하였다.¹¹⁾ 또한, 1989년에 개수한 님스의 오페라 극장은 내부를 대부분 철거하고 기존의 들보와 수평이 강조된 벽면 구성에 수직으로 내려진 조명으로 수직·수평의 대비를 표현하였다.¹²⁾ 이처럼 그는 수직·수평을 대비시킨 표현을 통해 실내공간에 균형감과 긴장감을 부여하였다.



<그림 10> Palais de l'Élysée, 1983



<그림 11> Opera Theater, 1989

3.4.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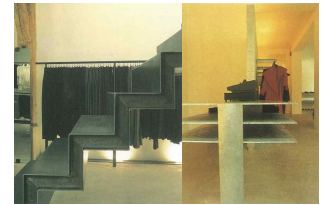
실내공간에서 오브제는 회화에서의 오브제와는 달리 예술적 의미를 넘어 기능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 같은 건축가들은 건축의 구조체인 기둥이나

벽, 계단 그 자체를 공간의 연속적 맥락 속에서 공간을 강조하는 오브제로 활용하였다.¹³⁾ 또한, 가구를 신체의 기관으로 연장된 오브제로 이해하여 건축과 가구의 중간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빌모트의 공간에 자주 등장하는 계단이나 전시 구조물은 실내공간에서 기능적인 요소로 사용된 오브제이다. 그는 건축물과 장소의 영원성에 걸 맞는 구조물들을 통해 건축과 실내공간을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학적 정점을 표현하는 수직적인 요소로 공간을 구조화하고 단계화하고자 하였다.¹⁴⁾ I.M 페이가 설계한 루브르 박물관의 특설전시실과 뮤지엄 스텝을 디자인한 빌모트는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는 실내공간의 전시나 계단 구조물의 오브제화로 건축물과 실내공간에 통일감을 부여하였다.¹⁵⁾



<그림 12> Le Grand Louvre, 1989



<그림 13> Yohji Yamamoto Boutique

3.5. 질감의 대비

빌모트는 화강석, 대리석, 유리, 청동 및 철과 같은 차갑고 강렬한 재료를 가지고 질감의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 이는 재료가 가진 잠재력과 물성으로 그 깊이를 재발견하기 위해 재료의 마감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질감에 의한 마감의 변용은 재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빛을 통해 더욱 이색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¹⁶⁾ 테크날과 아비뇽 경매장의 고건축물 개수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벽돌과 목재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와 유리 및 철재 등의 현대적인 건축 재료에 의한 질감을 대비시켜 상승작용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¹⁷⁾



<그림 14> Technal, 1989

3.6. 간접이음 디테일

미스 반 데 로에는 디테일에 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10) Jean Grisoni, Jean-Baptiste Loubeyre, Wilmotte L'instinct architecte, Le Passage, 2005, p.28
11) 송현철, 전계서, p.71
12) Jean-Michel Wilmotte, 전계서, p.40

13) 심은주, 안드레 페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6, p.57
14) Jean Grisoni, Jean-Baptiste Loubeyre, 전계서, p.20
15) 송현철, 전계서, pp.74-76
16) 상계서, p.72
17) Jean-Michel Wilmotte, 전계서, pp.51-52

건축에서 디테일 가치를 피력했다. 디테일은 건축 언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구조적 합리성, 재료적 물성의 발현, 건축가의 기술에 대한 인식, 물질에 대한 태도 등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또한, 디테일을 통하여 건축생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정되며 디자인을 완결 지어주기도 한다.¹⁸⁾



<그림 15> Boutique
Junko Koshino, Motaigne, 1990

빌모트는 디테일을 잘 다루는 디자이너로 용접 대신에 10개의 나사가 필요하다면 열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사를 사용하겠다고 말할 만큼 디테일을 중요시한다. 디테일에 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연결고리의 형식이나 가구의 나사 위치 등 작은 부분까지 정확하게 디자인하였다. 그는 작품에서 간접이음 디테일이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공간과 현대적인 요소가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났을 때 등 두 가지 요소 사이를 빈 공간을 통해서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이러한 간접이음 디테일은 공간 전체를 단절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가구가 조립되는 형식 등 매개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부분에도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4. 장 미셸 빌모트의 전시공간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사례분석

4.1. 사례 범위

장 미셸 빌모트의 작품 분석 사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빌모트는 1993년도에 건축학 학위를 받은 후 디자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²⁰⁾ 그 시기에 디자인 표현특성이 잘 나타난 국내·외 전시공간을 지역과 연도를 고려하여 6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은 참고서적²¹⁾과 자료, 홈페이지²²⁾ 등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표 1> 사례분석 범위

번호	작품	위치	준공
1	National Museum of Chiado	Lisbon, Portugal	1994
2	Hennessy Museum	Cognac, France	1996
3	Gana Art Center	Seoul, Korea	1998
4	President Jacques Chirac Museum	Sarran, France	2006
5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China	2007
6	Orsay Museum	Paris, France	2011

18) 권성우, 현대 건축 외피의 다양한 표현을 위한 디테일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9, p.5

19) 장순각, 전게서, p.36

20) www.wilmotte.com

21) François Lamarre, Jean-Michel Wilmotte, Architecture at work, Groupe Moniteur, 2008



22) www.wilmotte.com

4.2. 사례분석

<표 2> 사례분석-1




1		National Museum of Chiado			
		Lisbon, Portugal	1994		
<p>키아도 국립 현대 미술관은 1988년에 화재로 손실된 부분을 재건축한 프로젝트로 주변과 인접한 건물을 확장,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기획실, 전시실, 보관실로 구성된 미술관은 새롭게 삽입된 2개의 구름다리로 각각의 공간들을 연결, 공간의 축을 만들고 있다. 전시공간은 바닥을 높이고 레이조명을 도입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광을 끌어들여 밝은 분위기의 전시공간을 조성하였다</p>					
표현특성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	●	●	●	●	●
공간의 맥락성					
		<p>건물은 화재로 인해 벽과 바닥 등 실내구조들이 훼손된 가운데 천장의 볼트 구조와 몇 개의 기둥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볼트 구조 등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 공간의 맥락성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였다. 또한 전시공간에서는 아치형 구조의 벽면을 설치하여 기존 구조의 맥락성을 표현하였다.</p>			
축의 설정					
		<p>공간을 가로 지르는 두 개의 구름다리로 공간의 축을 설정하였으며, 이것은 재건축을 통해 확장된 건물들을 연결하면서 전시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외에도 전시 공간에는 전시 구조물과 천장 조명으로 공간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p>			
수직·수평의 대비					
		<p>외부에서는 간결한 형태의 건축물에 긴 수직 창과 가로로 놓인 목재 루버, 유리 프레임 등의 대비에 의한 수직·수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실내공간에서는 구름다리 구조 아래에 설치한 철제 프레임이 수직·수평의 대비를 이루면서 날렵함과 함께 공간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p>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p>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철제 계단이나 구름다리에서 오브제화된 실내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얇게 절단된 철제를 기하학적인 구조로 디자인, 공간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오브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p>			
질감의 대비					
		<p>기존 건물의 거친 벽돌 위에 철재나 유리, 도장 등의 매끈한 재료들에 의한 질감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질감의 대비는 공간감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p>			
간접이음 디테일					
		<p>기존의 천장 구조를 보완하고자 각각의 기둥 사이를 철제 보를 사용하여 연결시켰다. 과거의 기둥과 현대의 재료 사이에 빈 공간을 둔 간접이음 디테일로 마찰을 최소화하였다.</p>			

<표 3> 사례분석-2

2	Hennessy Museum Cognac, France	1996												
<p>헤네시 박물관은 주변 건물의 높이, 도로와의 관계, 인접한 강 등의 맥락을 반영하여 단순하면서 리듬감 있는 건축물로 디자인하였다. 일부 등을 신축한 박물관은 외관에 고티카 지방의 전통적인 건축물의 입면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솔리드와 보이드로 역전시켜 목직한 기단부 위에 커튼월의 상층이라는 구성을 완성하였다. 실내공간은 중앙의 관람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최소한의 색채와 마감에 의한 현대적인 전시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현특성</p> <table border="1"> <tr> <th>공간의 맥락성</th> <th>축의 설정</th> <th>수직·수평의 대비</th> <th>실내구조의 오브제화</th> <th>질감의 대비</th> <th>간접이음 디테일</th> </tr> <tr> <td>●</td> <td>X</td> <td>●</td> <td>●</td> <td>X</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공간의 맥락성</p> <p>19세기의 건축물을 유지·보존하고자 단층이었던 것을 2층으로 중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층의 기존 벽과 바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층은 비슷한 재료를 사용, 공간의 맥락성을 표현하였다. 그런 공간에 철재를 사용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하였다.</p>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	X	●	●	X	●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	X	●	●	X	●									
<p style="text-align: center;">수직·수평의 대비</p>  <p>실내공간에 있어 벽과 기둥이 수직적인 요소, 구름다리 및 복도가 수평적인 요소를 이룬 수직·수평의 대비를 보여준다. 이러한 수직·수평의 구조적인 대비로 역동적인 전시공간을 표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내구조의 오브제화</p>  <p>작품을 단순히 벽면에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제 전시 구조물이라는 오브제 장치로 실내구조의 오브제화를 표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간접이음 디테일</p> <p>기존의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개수한 프로젝트로 철제 난간과 구름다리 등으로 공간을 나누었다. 이에 과거의 벽과 현대적인 재료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두 요소 사이를 빈 공간을 둔 간접이음 디테일로 유기적인 결합을 표현하였다.</p>														

<표 4> 사례분석-3

3	Gana Art Center Seoul, Korea	1998												
<p>가나아트센터는 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면의 막힘과 트임, 볼륨의 비례와 구성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은 전시, 판매, 업무 공간으로 나누어 옥외 계단과 나란히 뻗어있는 구름다리로 공간들을 연결, 분리하고 있다. 전시·판매 공간은 유리창과 밝은 톤의 타일, 각기 다른 비율의 목재 루버로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업무 공간은 중량감 있는 느낌의 석재로 마감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현특성</p> <table border="1"> <tr> <th>공간의 맥락성</th> <th>축의 설정</th> <th>수직·수평의 대비</th> <th>실내구조의 오브제화</th> <th>질감의 대비</th> <th>간접이음 디테일</th> </tr> <tr> <td>X</td> <td>●</td> <td>●</td> <td>●</td> <td>X</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축의 설정</p>  <p>전시공간과 업무공간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의 축을 실내공간까지 연결하여 문의 중심과 계단, 천장의 조명으로 공간의 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대칭적인 구조로 안정감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굴뚝에서 강한 축을 설정한 것이 보인다.</p>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X	●	●	●	X	●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X	●	●	●	X	●									

<p style="text-align: center;">수직·수평의 대비</p>  <p>외부에서는 다양한 비율의 목재 루버와 창문 프레임에 의한 수직·수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내공간에서는 창문과 타일, 차양, 난간 등의 대비를 통해 수직·수평의 대비를 느낄 수 있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내구조의 오브제화</p>  <p>실내공간에서는 옥상층으로 오르는 좁고 긴 형태의 계단으로 실내구조의 오브제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판매 공간의 전시용 구조물도 오브제화가 나타나고 있다. 외부 벽면에는 계단의 구조를 그대로 표현한 디자인으로 계단을 통한 오브제화를 표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간접이음 디테일</p>  <p>창틀의 구조에 보조 조인트를 부착하는 방식에 있어 간접이음 디테일로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판매 공간의 w전시용 구조물을 철근, 목재, 유리 등으로 조립 가능한 디자인으로 간접이음 디테일을 표현하였다.</p>	

<표 5> 사례분석-4


4	President Jacques Chirac Museum Sarran, France	2006												
<p>자크 시라크 대통령 기념박물관은 농가로 사용되던 두 개의 건물을 연결시켜 볼륨감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이에 각 건물을 연결·분리할 수 있는 순환 구조로 다양한 경치를 차경적으로 즐기는 전시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현특성</p> <table border="1"> <tr> <th>공간의 맥락성</th> <th>축의 설정</th> <th>수직·수평의 대비</th> <th>실내구조의 오브제화</th> <th>질감의 대비</th> <th>간접이음 디테일</th> </tr> <tr> <td>●</td> <td>●</td> <td>●</td> <td>X</td> <td>●</td> <td>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공간의 맥락성</p> <p>농가로 사용된 건축물의 회색 물막이판과 석벽의 일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석재를 재활용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한 화강암을 사용, 공간의 맥락성을 표현하였다.</p>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	●	●	X	●	X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	●	●	X	●	X									
<p style="text-align: center;">축의 설정</p>  <p>탑의 입면에서 보이는 강한 축을 실내공간에서는 입구에서 건축물의 끝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를 통해 공간의 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두 개의 건축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강력한 축을 통해 실내공간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직·수평의 대비</p>  <p>외부는 수직·수평 패턴의 창문과 벽면, 지붕의 보와 기둥으로 수직·수평의 대비를 표현하였다. 실내공간에서는 전시 벽면과 대비를 이룬 각기 다른 비율의 창문 프레임으로 수직·수평의 대비를 표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질감의 대비</p> <p>거친 느낌의 회색 물막이판과 석벽, 매끈한 재질의 도장과 철재, 유리의 사용으로 질감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p>														

<표 6> 사례분석-5

5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China	2007			
<p>울렌스 현대예술센터는 1950년대의 산업 건물을 전시와 공연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곳은 두 개 홀의 실내공간을 콘크리트 골조로 연결, 통일감을 부여하였고 2층은 구조를 강조한 공간에 간접조명과 자연광에 의해 밝은 분위기의 실내로 디자인하였다.</p>					
표현특성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X	●	●	X	●	●
축의 설정					
		<p>입구부터 출구까지 이어지는 긴 통로를 축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전시공간을 연결하였다. 또한, 축을 중심으로 천장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축을 강조하였다.</p>			
수직·수평의 대비					
		<p>문형의 콘크리트 골조와 그 위로 지나가는 수직 구조물, 기둥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2층의 업무 공간 구조가 수직·수평의 구조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균형 있고 안정된 공간을 표현하였다.</p>			
질감의 대비					
		<p>백색의 실내공간에 재건 당시 남은 붉은색 벽돌로 질감의 대비를 이룬 공간으로 디자인,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다.</p>			
간접이음 디테일					
		<p>문형의 콘크리트 골조 위로 철재 보가 지나가고 있는 두 재료 사이를 간접이음 디테일로 마찰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p>			

<표 7> 사례분석-6

6	Orsay Museum Paris, France	2012			
<p>가에 아우렐리가 개수한 오르세 미술관의 5층 전시 공간을 빌모트가 개수한 프로젝트로 천장에 의한 자연광과 인공조명이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하였다. 실내공간의 모든 칸막이벽을 없애고 원목 마루와 회색, 자주색, 녹색 등의 색감을 더해 현대적인 분위기의 전시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p>					
표현특성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
X	●	●	●	X	X
축의 설정					
		<p>천장과 노출된 철골구조로 실내공간의 강력한 축을 설정,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과 문과 같은 구조물은 축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실 내부의 천장에도 조명을 가운데 설치하여 축을 표현하였다.</p>			
수직·수평의 대비					
		<p>수직의 벽면 구조 위에 수평으로 설치된 철골 보나 조명으로 수직·수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p>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p>전시공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문을 상징하는 것 같은 벽면은 실내공간과 가구의 중간 개념의 요소로 실내구조의 오브제화를 표현하고 있다.</p>

5. 결론

장 미셸 빌모트의 전시공간 실내를 공간의 맥락성, 축의 설정, 수직·수평의 대비,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질감의 대비, 간접이음 디테일이라는 6가지 분석틀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실내디자인 표현특성 분석표

전시공간 표현특성	National Museum of Chiado	Hennessy Museum	Gana Art Center	President Jacques Chirac Museum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Orsay Museum
공간의 맥락성	●	●		●		
축의 설정	●		●	●	●	●
수직·수평의 대비	●	●	●	●	●	●
실내구조의 오브제화	●	●	●			●
질감의 대비	●			●	●	
간접이음 디테일	●	●	●		●	

빌모트의 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실내디자인 표현특성을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맥락성은 기존 건축물의 볼트 구조를 그대로 유지,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하거나 기존의 재료를 재활용하면서 새로운 재료를 더하여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축의 설정은 다수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키아도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는 두 개의 구름다리, 가나아트센터와 자크 시라크 대통령 기념박물관, 울렌스 현대예술센터는 복도나 통로로 공간의 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천장과 노출된 철골구조로 축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셋째, 모던 클래식의 영향을 받은 수직·수평의 대비는 6개의 각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방식은 벽면 구성에 있어 각기 다른 비율의 유리나 철재 프레임을 사용하여 수직·수평의 대비를 보여주거나 수직적인 요소의 벽과 기둥, 수평적인 요소의 난간이나 천장조명으로 수직·수평의 대비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실내구조의 오브제화는 계단 구조물과 전시 구조물로 나뉘어 나타난다. 키아도 국립 현대 미술관과 가나아트센터에서는 철재의 계단과 구름다리, 좁고 긴 형태의 계단 디자인으로 오브제화하고, 헤네시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전시 구조물이나 전시 벽면 자체를 오브제화하여 실내공간과 가구의 중간 개념의 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가나아트센터는 판매공간의 전시용 구조물과 외부 벽면에 계단 구조를 삽입하는 등 오브제화 표현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질감의 대비는 붉은 벽돌이나 회색 물막이판, 석벽 등의 기존 건축물이 지닌 거친 재료에 매끈한 유리나 철판, 도장 등으로 이질적인 질감의 대비를 표현하고 있다.

여섯째, 간접이음 디테일은 서로 다른 요소간의 마찰을 최소화 시켜주는 특성으로 키아도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는 기존의 구조와 새로 더해진 철판 보 사이, 헤네시 박물관에서는 기존 벽면과 철판 난간과 사이를 간접이음 디테일로 표현하여 두 요소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가나아트센터는 전시공간의 창틀과 보조 조인트, 판매 공간의 벽면과 목재 선반, 전시용 구조물의 철근과 목재, 유리 사이를 간접이음 디테일 표현을 통해 조립이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장 미셸 빌모트의 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실내디자인 표현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실내디자인어와 건축가들이 전시공간 디자인 어휘에 적용, 개발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윤재희, 지인순, 건축가와 모던 클래식, 세진사, 서울, 2006
2. Jacques Lucan, 한지영, 최유중, 엄대봉, 오승태 역, 프랑스 현대건축의 역사와 이론 1940-2000, 초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6
3. François Lamarre, Jean-Michel Wilmotte, Architecture at work, Groupe Moniteur, Paris, 2008
4. Jean-Grisoni, Jean-Baptiste Loubeyre, Wilmotte L'instinct architecte, Le Passage, Paris, 2005
5. 김성혜, 매킨토시 작품에 나타난 공간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협성대 석사논문, 2002
6. 문권석, Jean Michel Wilmotte의 국내작품에 나타난 지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2007
7. 권영재, 까를로 스카르빠의 공간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6
8. 권성우, 현대 건축 외피의 다양한 표현을 위한 디테일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9
9. 이유진, 요제프 호프만의 건축에 나타난 '비형상적' 장식의 시각적 효과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1
10. 윤민희, 프랑스의 문화적 정체성과 디자인 정책,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권, 1997
11. 심은주, 안드레 퍼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2006
12. 황미영, 장 미셸 빌모트(Jean Michel Wilmotte)의 museografia 전개 특성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논문집 제9집 제1호, 2003
13. 송현철, pid, 1992, 10월호
14. 장순각, SPACE, 1998, 9월호
15. Jean-Michel Wilmotte, SD, 1991, 2월호
16. 장 미셸 빌모트 홈페이지, <http://www.wilmotte.com/>